

1세트에 끝난 환호 “후회는 없다”



정현(105위·삼성증권 후원)이 19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 남자 단식 2회전 상대 그리고르 디미트로프(15위·불가리아)와의 3세트 경기에서 2-0을 만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테니스 2회전

정현, 디미트로프와 대결

1세트 선취 기분좋은 출발

마지막까지 끈질긴 승부

1-3으로 아쉬운 역전패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05위·삼성증권 후원)이 세계 15위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를 상대로 분투했으나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정현은 19일 호주 멜버른 파크의 내셔널 테니스센터 하이센스 아레나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천만 호주달러·약 440억원) 나흘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디미트로프에게 1-3(6-1 4-6 4-6 4-6)

으로 패했다.

2015년 US오픈에 이어 생애 두 번째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2회전까지 진출한 정현은 2014년 세계 8위까지 오른 강호 디미트로프를 상대로 1세트를 선취하는 등 했지만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확을 올렸다. 1세트 초반은 잠시 불안했다.

디미트로프의 첫 서브 게임에서 한 포인트도 따내지 못한 가운데 내렸고,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은 더블볼트로 시작했다. 거의 1만 명이 들어찬 경기장 분위기와 톱 랭커 디미트로프를 상대하는 심적 부담이 겹쳐 위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내 평정심을 가다듬은 정현은 이후 거칠 것 없이 상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상대의 백핸드샷이 연달아 네트에 걸려 두 포인트를 따냈고 이어서는 시원한 서브 포인트까지 나오면서 게임스코어 1-1로 균형을 맞췄다. 자신감을 얻은 정현은 이후 5게임을 연달아 따내는 괴력을 발휘하며 첫 세트를 6-1로 가져왔다.

그러나 2세트 초반 디미트로프는 연달아 두 게임을 따내며 반격을 시작했고 결국 2세트를 6-4로 가져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 초반에는 정현이 내리 두 게임을

따내 게임스코어 2-0을 만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두 게임을 연달아 뺏겼고 게임스코어 3-3에서 또 한번 서브 게임을 내주면서 결국 세트스코어 1-2로 역전당했다.

경기력이 살아난 디미트로프는 4세에서도 게임스코어 2-2에서 정현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게임스코어 4-2까지 앞섰다.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 3-4로 추격한 정현은 다음 디미트로프의 서브 게임에서 40-15로 뒤지다가 기어이 듀스까지 만들었고 마지막 포인트 백핸드 발리가 네트를 맞고 넘어가는 행운이 따르면서 4-4 동점

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30-0으로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가다가 연달아 포핸드 샷이 라인 밖을 향하면서 게임을 내주고 말았다. 4-5로 뒤진 디미트로프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도 정현은 30-30까지 맞섰지만 두 포인트를 더 내줘 무릎을 꿇었다.

정현은 이번 대회 단식 본선 2회전 진출 상금 8만 호주달러(약 7000만원)와 랭킹 포인트 45점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새 옷 입은 타이거즈 모델갈네

프로필 사진 촬영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새 시즌을 앞두고 카메라 앞에 섰다.

지난 18일부터 챔피언스필드 실내 연습장에서는 올 시즌 사용될 프로필 사진과 전광판에 띄울 선수들 소개 영상 촬영을 위한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촬영에는 코치들도 참여한다. 올 시즌 KIA의 유니폼이 새로 바뀌면서 선수단 전원이 촬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촬영 첫 날인 18일에는 KIA에서 처음 또는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투수 임기영과 포수 한승택에게는 낯선 자리였다. 나란히 한화에서 건너온 두 사람은 군입대를 앞두고 FA 보상선수로 KIA로 이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임기영은 2014년 투수 송은범의 보상선수, 한승택은 앞선 2013년 외야수 이용규의 보상선수로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됐다.

두 사람은 보상 선수로 지명된 뒤 각각 경찰청과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느라 KIA선수로서의 생활은 뒤늦게 시작했다. 임기영이 지난가를 제대를 하면서 이번 시즌이 사실상 KIA에서는 첫 시즌이다.

“KIA 유니폼을 입은 함성 사진만 있었다”고 웃은 임기영은 드디어 KIA 유니폼을 갖춰 입고 올 시즌 자신의 명함



홍건희

으로 사용할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한승택은 임기영보다 1년 먼저 제대를 했지만 윈터리그 부상 휴유증으로 지난해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었다. 지난 10월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야무진 실력을 발휘한 한승택은 이번 1월에는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했다.

“우와 이런 것도 하느냐”면서 어색하게 메이킹업을 받고 조명을 받은 이들도 있다.

2014시즌 중반 군복무를 위해 떠났던 좌완 박경태와 외야수 이준호 그리

고 임의 탈퇴 후 군입대를 하느라 더 오랜 시간 KIA를 떠나있던 사이드암 손영민에게는 낯은 무등경기장이 아닌 새 야구장에서 처음 해보는 거창한 사진 촬영이었다.

역시 군 제대 선수인 좌완 손동욱과 우완 김중훈에게도 낯설지만 기분 좋은 촬영이었다. 지난 시즌 중반 군 제대 후 육성선수로 ‘0’이 붙은 036과 034의 번호를 사용했던 두 사람은 정식 번호의 유니폼을 입고 기분 좋게 사진 촬영에 임했다. 올 시즌 손동욱은 49번, 김중훈은 66번 유니폼을 입는다.

개인 훈련 일정에 바쁜 걸음을 한 이들도 있었다.

2017시즌은 물론 WBC준비까지 해야 하는 최형우는 애초 19일 예정됐던 촬영 날짜를 하루 앞당겨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밤 비행기로 고향으로 향했다. 19일에는 김선빈이 부지런히 촬영을 한 뒤 바빠 길을 나섰다. 앞서 모교인 화순고에서 훈련을 해왔던 김선빈은 후배들이 밀양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자 함께 훈련을 하기 위해 촬영이 끝난 뒤 바로 밀양으로 달려갔다.

촬영 마지막날인 20일에는 ‘해외파’들의 스케줄이 잡혀있다.

오카나와에서 개인 훈련을 해왔던 김진우·배현찬, 팔을 올 시즌 준비무대로 삼은 이범호·김주찬·나지완 등이 귀국해 새 유니폼을 입고 촬영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월 한-일-대만 ‘야구 대항전’ 추진

다음주 최종안 발표

한국과 일본, 대만이 3개국 대표팀이 맞붙는 야구 대항전을 준비 중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19일 “어제(18일) 일본야구기구(NPB), 대만 프로야구 사무국(CPBL) 관계자와 만나 11월에 3팀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를 열자고 논의했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각 리그에서 세부 사항을 준비한 뒤 최종안을 다음 주께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스포츠닛폰은 “NPB의 주도로 대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18일 오후 이

하라 아쓰시 NPB 사무총장과 양해영 KBO 사무총장, 추경편 CPBL 비서장이 모여 회의를 했다.

3명 모두 11월 3개국 야구 대항전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 일본, 대만은 2013년까지 아시아 시리즈를 열어 각 리그 우승팀이 자존심 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인기 하락과 스폰서십을 구하는 데 애를 먹어 폐지했다.

이번에는 대표팀이 출전하는 국제 대회를 만들려고 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흥행과 찾은 국제

대회로 지친 선수들이다.

구마자키 가즈히코 NPB 커미셔너는 “올해 3월에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린다. 2019년 11월에는 프리미어 12,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을 치른다”며 “국제대회가 끊이지 않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다”고 ‘연속성’을 강조했다.

스포츠닛폰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대비하고, 2017년 3월 WBC를 치른 선수들을 배려하고자 11월에 열리는 3개국 대항전에는 30세 이하 선수만 대표팀에 뽑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총장은 “우리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KLPGA 상별위, 박성현 징계 않기로

“현대차 오픈 불참 사유 소명”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를 석권한 박성현(24·사진)은 11월 6일 팬텀 클래식을 마치고 시즌을 접었다.

그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미국 진출을 결심하고 시즌 첫 대회 출전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보니 하루빨리 미국에 건너가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현은 이후 정규 투어 대회인 ADT 캡스 챔피언십과 현대차 중국여자오픈과 이벤트 대회인 챔피언스트로피와 국가 대항전 더린즈 등 일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대회와 달리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불참은 문제가 됐다.

박성현은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해에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KLPGA 투어는 디펜딩 챔피언이 타이틀 방어전에 빠지면 상별위원회에 넘겨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승 상금 전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합당한 사유”는 부상이나 질병, 결혼, 가족 애경사 등이다. 선수 본인의 훈련 일정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상별위원회를 개최한 KLPGA 투어는 박성현의 현대차 중국여



자오펜 불참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박성현은 상별위원회에 허리를 다쳐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고 소명했다. 허리 부상을 입증하는 진단서도 제출했다.

상별위원회는 박성현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상별위원은 “선수가 몸이 아파서 대회에 나오지 못한 다며 진단서까지 냈는데 징계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상별위원은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에게 장도를 빌어주지는 못할망정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